

【 해외금융뉴스: 유럽 】

Dresdner Bank 최대 손실로 Allianz 당혹

□ Commerzbank로 인수절차가 논의되고 있는 Allianz그룹 산하의 Dresdner Bank가 3/4분기 8억3,500백만 유로의 영업손실을 기록함에 따라 모그룹인 Allianz 역시 이에 영향을 받아 20억 유로의 순손실(25억7000만 달러)을 기록하게 됨.

○ Dresdner Bank의 3/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면 2007년 12억 유로에 달했던 매출액이 2008년 7억4,700만 유로로 하락하였고, 영업이익은 2007년 8,700 유로에서 2008년 -8억3,500만 유로로 급감함.

□ 11월10일에 발표된 Allianz의 3/4분기 영업실적에 따르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 속에서 ① 생명보험과 자산운용 사업부문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의 감소와 더불어 ② Dresdner Bank의 순손실 규모 증가로 전체 매출액과 영업이익, 순수입 등이 급감하는 상황이 초래됨.

○ 2008년 3/4분기 전체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3.8% 감소한 211억 유로를 기록하였고, 영업이익은 39.3% 감소하였으며, 순수입은 2007년 19억2,100만 유로에서 2008년 -20억2,300만 유로로 급감함.

– 손해보험사업의 영업이익은 작년에 비해 16%만 하락하여 그나마 버팀목으로 작용하였지만, 생명보험부문 -75%, 자산운용부문 -43.6%, 기업보험부문 -65.2%를 비롯하여 매각협상이 진행 중인 Dresdner Bank부문은 자그마치 1,906.3% 급락함으로써 모그룹의 영업이익을 39.3%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

– 이 수치는 3/4분기 누적치인 16.0% 하락과 비교해 보아도 3/4분기 당해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했던 사실을 알 수 있음.

□ 3/4분기 수입보험료가 7.8% 성장한 손해보험은 건조한 실적을 보였다고 평가되나, 변액보험이 13억 유로 감소하고, 16억 유로 규모의 자산가치 상각이 발생한 투자영업이익이 전년동기에 비해 5억 유로 감소함에 따라 생명보험은 그룹영업실적에 부담으로 작용함.

- 손해보험사업부문 중 신용보험에서는 그동안 유동성 문제로 지급되지 못했던 지급보험금이 3/4분기에 물리는 현상이 발생하였고, 허리케인으로 인해 미국 농작물배상보험부문에서의 실적 악화가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.
 - 사업비율은 2007년 3/4분기 27.6에서 2008년 26.2로 감소하였으나, 합산비율은 94.1에서 96.2로 소폭 상승하였음.
 - 생명보험 사업부문에서는 그나마 전통적인 상품영역에서 작년 3/4분기에 비해 4억 유로 증가한 10% 성장세를 시현함.
- 3/4분기 자산운용부문은 평가절상으로 인한 플러스 요인과 자본시장 악화에 따른 마이너스 요인이 서로 상쇄되는 상황 속에서 영업이익은 2007년 3억3천만 유로에서 2008년 44% 감소한 1억 8,600만 유로에 그쳤으나, 운용자산은 2/4분기 7,400억 유로에서 7,540억 유로로 증가함.
- 140억 유로의 운용자산 증가를 구체적으로 보면 평가절상으로 인한 부문이 530억 유로, 자본시장 악화로 인한 요인이 -440억 유로, 순자산 유입이 56억 유로로 나누어짐.
- Allianz는 주식시장의 회복이 요원한 현 상황에서 영업이익 목표치인 90억 유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으나, 1~9월 간 65억 유로의 영업이익 달성은 그나마 영업의 기본이 건강하다는 신호라고 주장함.
- 반면 시장에서는 그동안 Dresdner Bank의 실적 악화로 인해 주가가격이 올 초 보다 절반 이하로 하락함.
- 애널리스트들은 유로지역내 보험사업부문 경쟁 업체인 프랑스의 AXA, 이탈리아의 Generali 등에는 각각 6.1과 9.9의 실적평가 가중치를 두는 반면, Allianz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5.0의 가중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(Allianz 2008년 3/4분기 실적 관련 보도자료 11/10

Reuters 11/10

Financial Times 11/10)